

고창서 즐기는 특별한 한옥스테이

# 선운사 보이는 툇마루, 수제가구 안채...한옥의 맛 가득

찌는 더위에 고창 선운사를 걸었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까지, 도솔전을 따라 난 산책로에 들어서니 뽀뽀한 풀내음과 함께 기적처럼 선선한 바람이 분다. 도솔전의 고요한 폭포소리는 복잡한 마음을 싹 씻어준다. 대웅전 앞마당엔 400년 된 배롱나무가 만개했고, 9월에는 붉은 '꽃무릇' 무리가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지장보궁에는 소원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한 지장보살이 지켜든 손가락에 신도가 바친 금가락지가 빛난다.

풍천장어와 복분자주로 유명한 시골마을 전복 고창군도 알고보니 볼거리·즐거거리·애깃거리가 꽤 많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동백숲·송악 등 천연기념물이 7개나 있다. 1500년 된 고찰 선운사 근처 생태숲도 근사하고, 고창읍성엔 한옥마을도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 특별한 한옥 스테이가 문을 연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이 19일 오픈하는 '올모스트홈 스테이'다.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지방에서 답을 찾다

세상은 지금 로컬리즘이 화두다.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가 가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게 되면서, 대도시를 벗어나 지방 소도시의 전통과 자연, 문화에 기반한 '지역다움'의 가치가 대두되고 있다. 소비재 기업들이 인구감소, 경제활동 둔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 도시와 상생 도모에 나선 이유다.

식음료업계에 불고 있는 '로컬 브랜딩' 열풍이 대표적이다. 스타벅스 '이천힐랄라떼'가 대박을 치고, '부산밀백' '충주에일' 등 지역 양조장과 협업한 수제맥주도 호응을 얻고 있다.

차별화된 감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업계도 지방에서 답을 찾고 있다.

에피그램의 '올모스트홈'도 군단위 소도시의 숨겨진 스맛을 발굴해 소개하는 공간 프로젝트다.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브랜드 정신을 로컬리즘과 바꾸려 공감각적으로 느껴보게 하는 컨셉트. 올해 봄-여름 시즌부터 경남 하동과 풀라보레이션을 시작했다. 하동 벚꽃길 등을 배경 삼은 화보 촬영을 비롯해 벚꽃차, 빗자루 등 다양한 특산물을 재가공해 에피그램의 소품으로 판매하고, 지역 소식을 제작해 하동의 이모저모를 소개한 것.

에피그램의 모델인 공유가 마스코트가 됐다. 하동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 화보 촬영지를 투어하는 외국인 등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특산물도 잘 팔렸다. 에피그램 매장에서 선보인 하동의 여덟 가지 상품 매출액이 전체 상품 매출 중 6%를 차지했다. 에피그램을 총괄하는 코오롱FnC의 환경에 전무는?우리가 추구하는 슬로우 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다. 덜 알려진 지방 소도시의 아름답고 여유있는 모습을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로컬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을·겨울 시즌에는 고창으로 옮겨 아예 '살아보기'를 제안한다. '공유의 일상을 공유하다'는 컨셉트로 고창읍성의 한옥 2채를 위탁받아 6개월간? 올모스트홈 스테이?를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의 체험 문화 트렌드에 맞춰 한옥 숙소에서 머물며 먹거리와 소품 등 현지 감성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안채에 들어서면 1호 방문객 공유가 물레 자필



1 내부는 에피그램 스타일의 가구와 소품으로 꾸몄다.  
2 지역민과 협업한 제품을 전시한 쇼룸.  
3 에피그램의 모델인 공유(오른쪽).  
4 야생꽃차 꿀청 체험 클래스.  
5 툇마루에서 즐기는 조식. [에피그램]



5

인을 남기고 간 포럼(布瀾)이 환영인사를 건넨다. TV 등 전자기기를 없애고 수제 원목가구 등으로 고즈넉한 정취를 한껏 살렸다. 선운산이 내다보이는 툇마루에서 즐기는 조식도 작은 호사다. 복분자와 옥수수, 청보리, 상농장에서 생산한 요구르트와 계란 등 건강한 맛으로 짝 채워진 소쿠리가 깨다리 소반에 배달된다.

### 소멸 위기 고창읍성 모던한 식기로 재탄생

체크인 카운터로 이용되는 쇼룸에는 고창군과 협업한 제품들을 전시 중이다. 고창읍성, 복분자 발사믹식초와 토굴된장, 복분자 부각, 선운산 야생꽃차

등 17 종류의 상품 중에도 양중맛은 고창읍성이 눈에 띈다. 소멸 위기의 읍가를 아담한 식기로 멋스럽게 바꿔낸 것이다.

다양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모색 중이다. 폐교를 도서관으로 꾸민 '책마을 해리'에서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에피그램 제품에 일러스트로 활용하고, 고창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개발해 곳곳에 위치한 올모스트홈 카페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한옥에서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도 지역 정취가 불췌하다. 귀농 CEO들의 단체인 '청년 벤처스'와 함께 무설량 푸딩, 전통양갱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야생꽃차 꿀청 만들기 클래스를 체험해 봤다. 예쁘게 말린 해당화, 국화, 구절초가 모양도 색도 선명하다. '클래스'라고 긴장할 것 없다. 다양한 차를 눈코입으로 음미해보는 힐링의 시간이다. 작은 유리병에 꽃잎을 듬뿍 넣고, 따뜻한 데운 아카시아 꿀을 천천히 부으며 고창의 향기를 담는다. 씹사름한 국화차 한모금에 점심으로 먹은 장어를 개운하게 내려 보내고, 꿀청으로 만든 자연의 단맛이 속을 편안히 감싸준다. 바쁜 일상 속에도 자주 떠오르는 '고창의 맛'이다.

/유주현 기자 yjoo@j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기사입니다>

## 담양 삼지내마을·봉평 메밀꽃밭·남원 혼불문학마을...가을이 부른다

정형모 전문기자·중앙컬처&라이프스타일팀

가을 여행주간 9월 12일~29일  
국내 여행 새 수요 창출용  
전국 20개 테마 마을 소개

소설가 이효석이 "소금을 뿌린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묘사한 9월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밭을 기본 적인 사진(사진).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8만㎡에 뻗뻗하게 심어놓은 해바라기가 노란 바다를 이루는 경남 함안 강주마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가을 여행주간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하는 행사다. 휴가 및 관광의 여름철 집중을 분산하고, 색다른 국내 여행지 및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진행돼 왔다.

올해의 테마는 '마을'. 김태영 장소 선정 전문가가 추천한 전국의 특색 있는 마을 20곳을 '취향저격 마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글머리에 소개한 2곳 외에 쇠락한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

마을로 변신한 부산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이자 작가 최명희 선생의 고향으로 종가집 노봉서원 등 조선 후기 건축양식을 만날 수 있는 전북 남원 혼불문학마을, 전통 가내 수공업방식으로 꽃자리리를 만들고 있는 인천 강화 화문석마을 등이 놀라운 체험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1만원으로 로케이션 매니저와 4곳의 마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이 눈길을 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담양 삼지내마을에서 헤민 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9월 19일), 유현수 한식셰프와 경남 함안 개평마을에서 송송주담그기 체험(9월 23-24일)을 할 수 있는 자리다.



19일부터 9월 4일까지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을 통해 사연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9월 9일 오후 2시 당첨자를 알 수 있다.

캠핑카를 타고 방방곡곡 명소를 찾아가는 JTBC

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캠핑클럽'과 연계한 행사도 관심거리. 9월 4일까지 여행주간 누리집에 가고 싶은 여행지와 하고 싶은 활동을 적어 응모하면 1등 3명에게는 '캠핑클럽' 캠핑카 2박3일 이용권과 캠핑그릴을 제공한다.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20개를 마련해 가을을 즐기려는 관광객을 유혹하고 나섰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성심당 빵집을 돌아보는 '스팀쿡 대전여행', 전통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야단법석 맛있는 순창여행' 등이다.